

보도시점 배포 즉시 배포 2024. 7. 24.(수)

외교부, 「2025 APEC 주제 및 중점과제 전문가 세미나」 개최

외교부는 7.24.(수) 웨스틴조선 서울에서 「202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(APEC)* 주제 및 중점과제 전문가 세미나」를 개최했다. 지난 6.13.(목)에 이어 두 번째로 개최된 이번 세미나에서는 관계부처뿐 아니라 학계, 경제단체, 전문가 등 관련자 100여 명이 참석해 2025년 APEC 주제(theme) 및 중점과제(priorities) 구상을 위한 건설적인 의견을 제시했다.

* APEC은 아태지역 최대 경제협력체로, 우리나라, 미국, 중국, 일본, 러시아 등 21개 회원국이 참여

김희상 경제외교조정관은 모두발언에서 2025년 APEC 정상회의 준비 진행 상황을 공유하며 외교부가 지자체, 관계부처 등과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. 아울러 김 조정관은 2025년 APEC 정상회의의 성공을 위해서는 글로벌 위기에 대응하고 아태지역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적시성 있는 주제 및 중점과제 발굴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.

이번 세미나에서 외교부와 전문가 워킹그룹은 디지털, 연결성, 포용성을 표방하고 분야별 장관회의 성과들을 포괄할 수 있는 주제 안들을 제시했다. 이어 푸트라자야 비전 2040*의 3대 축인 ▲무역·투자, ▲혁신·디지털화, ▲지속가능·포용적 성장을 주제로 세션별 패널 발제와 자유토론을 거쳐 아태지역 공동번영과 경제 협력 증진을 위한 기대성과 달성 방안 및 주제 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.

* 푸트라자야 비전(Putrajaya Vision) 2040 : APEC 장기 비전으로, 2040년까지 APEC의 협력 방향을 담은 문서(2020 APEC 정상회의에서 채택)

- 3대 핵심요소 : ①무역·투자 자유화, ②혁신·디지털 경제, ③포용적·지속가능한 성장

외교부는 이번 세미나에서 개진된 각 분야의 제언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9월에 APEC 회원국들을 대표할 수 있는 정부 인사, APEC 사무국, 국내외 전문가 등을 초청해 국제 포럼을 개최하는 등 국내외 폭넓은 의견 수렴을 거쳐 2025 APEC 주제 및 중점과제를 선정할 계획이다.

이후 올해 12월 우리나라가 2025년 APEC 의장국으로서 개최하는 첫 번째 회의인 비공식고위관리회의(ISOM) 계기 국제 심포지엄을 통해 회원국들에게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.

붙임 : 세미나 사진. 끝.

담당 부서	국제경제국 지역경제기구과	책임자	과장	이동구	02-2100-7652
		담당자	서기관	정승아	02-2100-7651